

花東甲骨文에 나타난 婦好 관련 卜辭 考察*

申永子**

<目 次>

1. 序論
 2. 婦好의 활동 및 婦好墓 발굴
 3. 내용 분석
 4. 結論
- 附錄 : 花東甲骨文 중 婦好 관련 卜辭

1. 序論

花東甲骨文¹⁾은 1991년 가을 殷墟博物館에서 安鋼大道에 이르는 도로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1,583편의 갑골편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갑골편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혀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형태의 갑골이 전체 80%가 넘고 刻辭가 있는 甲骨이 559편을 차지하고 있어 갑골문 연구뿐 아니라 당시 사회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占卜의 主體者가 王이 아닌 子이기 때문에 非王卜辭²⁾에 속한다. 그동안 발굴된 갑골문이 대부분 왕실의 사안에 대해 왕이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 327-A00468).

** 고려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강사

- 1) 花東甲骨文은 花園莊東地甲骨文的 약칭이며 이는 1991년 花園莊에서 동쪽으로 100여미터 거리에 있는 H3坑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명칭을 '91花東H3甲骨文' 또는 '花東H3甲骨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또한 刻辭가 있는 갑골편은 '花東卜辭', 'H3卜辭' 또는 主體者子이기 때문에 'H3子卜辭'라고도 칭한다. 본편에서는 '花東卜辭' 또는 'H3卜辭'로 명칭한다.
- 2) 非王卜辭란 왕이 아닌 제삼자가 주체가 되어 占卜을 한 刻辭를 의미하고, 花東卜辭의 占卜

직접 占卜의 주체가 된 王卜辭이다. 花東甲骨文은 갑골문 시기 초기에 속하며, 武丁시기 초기의 기록물이다. 이곳의 주요 인물은 花東甲骨文的 주체자인 子³⁾와, 丁(武丁)⁴⁾, 그리고 婦好이다. 武丁과 婦好는 王卜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婦好는 商代 후기 기원전 13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武丁의 재위기간(B.C.1324~1265)에 활동했던 역사상 기록과 實證이 있는 최초의 실존 여인이면서 왕비이다.⁵⁾ 갑골문의 기록을 통해 살펴 볼 때 그녀는 封地를 받아 다스렸고, 최고에 지위에 있는 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던 왕비였고, 1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장군을 통솔해 전쟁에 참가하여 동서남북에 위치한 적국을 무찔러 용맹스러운 위업을 남긴 맹장이기도 하였다. 婦好는 또한 왕 武丁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그녀 생활 전반에 걸쳐 왕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왕은 그녀의 임신, 출산, 봉지의 안위, 질병과 치유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占卜하여 물었다. 특히 그녀가 출산한 자녀의 길흉, 즉 아들인지 딸인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왕보다 앞서 세상은 婦好의 죽음 앞에 애통해 하였고, 死後의 명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기록들은 한 여인으로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한 자취를 남겨주고 있다.⁶⁾

婦好가 당시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은 그녀의 墓가 도굴당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발굴됨으로서 전설과 신화로만 인식되었던 商王朝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해 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1976년 殷墟 小屯村 북서쪽, 즉 왕궁주변에서 지하 9층으로 된 그녀의 묘가 발굴되었는데 청동기, 옥기 등

의 주체자는 왕이 아닌 '子'가 주체이기에 非王卜辭에 속한다. 반면 王이 주체가 되어 왕실의 사안에 대해 占卜을 한 것은 王卜辭라고 한다. 花東甲骨文이 발굴되면서 非王卜辭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非王卜辭에 대한 연구는 商代 사회의 기본구조와 商代 宗族의 형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申永子, 《殷墟花園莊東地甲骨文研究》, 2004, 218-227쪽)

- 3) 子의 신분에 대해 異見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武丁의 아들이며 태자였던 孝己로 보고 있다. (申永子, 《花東甲骨文中 나타난 정벌관련 卜辭》, 2012, 89-92쪽)
- 4) 花東甲骨文中에서 丁은 살아있는 정과 이미 돌아가신 丁 두 사람이다. 丁의 신분에 대해 많은 異見이 있었으나 최근 살아있는 丁은 당시 商王인 武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申永子, 《花東甲骨文中 나타난 정벌관련 卜辭》, 2012, 92-93쪽)
- 5) 梁東淑, 《甲骨文中으로 본 商代 武丁妃 婦好》, 1992, 143쪽.
- 6) 梁東淑, 《甲骨文中으로 본 商代 武丁妃 婦好》, 1992, 144쪽.

부장품이 1,926점, 당시 화폐로 사용되었던 貝나 여인의 호신부로 사용된 貝類가 6,700여 점이 발굴되었다.⁷⁾ 갑골문이 발견되고 그녀의 묘가 발굴되면서 상나라는 명실상부한 역사의 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婦好 관련 갑골문의 기록 및 유물에는 武丁시기 초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모습, 사유방식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그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면 당시 제반문화뿐 아니라 당시 여성문화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이래 중국의 여성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당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婦好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중국인들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틀을 깨고 중국 고대 여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3,300년 전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갑골문 시기 婦好 관련 卜辭를 통한 商代후기 여성문화를 고찰하기 위한 선행연구이다. 갑골문에는 약 2백 여조의 婦好 관련 기록이 있다.⁸⁾ 花東甲骨文에는 44조가 있다. 花東甲骨文에서는 갑골문 시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婦好 활동을 볼 수 있으며, 非王卜辭에서의 婦好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婦好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녀의 활동과 婦好墓 발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花東卜辭에 나타난 婦好 관련 卜辭를 내용별로 분류하면서 그녀의 활동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婦好의 활동과 婦好墓 발굴

기존에 연구되었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甲骨文合集》에 나타난 婦好 관련 기록을 고찰하면서 자료가 보완될 것이다.

7) 신영자, 《갑골문의 비밀》, 2011, 76-77쪽.

8) 常新枝, 《商代女僕—婦好》, 2005, 34쪽.

1) 婦好의 활동

婦好의 출생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武丁왕에게는 약 60여명의 妃가 있었다. 이 중 辛, 戊, 癸 등 단 3명만이 왕비로 추대되었는데 婦好가 바로 辛이다. 婦好는 생전에 불리던 이름이다. 死後 廟號는 '辛'이고 후대에 존중해 '妣辛' 혹은 '后母辛'이라고도 부른다.⁹⁾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갑골문의 기록에 의하면 婦好는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 뿐만 아니라 왕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주관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등 당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여인이다. 그녀는 왕비로서 봉지를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왕도에 있는 상왕을 알현하는 기록이 있다. 또한 婦好는 왕의 동족 죄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었다. 동족죄인의 체포는 왕만이 갖는 권한이었다. 당시 제사는 왕만이 주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婦好는 왕의 명령을 받아 又·告·酒·伐祭 등 각종 제사를 주관했고, 貞人으로서 귀갑을 헌납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했다.¹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婦好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녀의 군사적인 활동은 탁월했다. 武丁 왕 당시 상나라 주변에는 136개 方國이 있었다. 그 중 武丁 시기에 81개 방국을 정벌했고¹¹⁾, 婦好 생전에는 동서 남북에 있는 20여 개 小國(方國)을 정벌¹²⁾ 할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다. 婦好는 왕의 명령을 받아 직접 군사를 징집하여 人方·巴方·羌方·土方·湍方 등의 정벌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 巴方을 정벌할 때는 역사상 최초의 매복전을 펼쳤고, 羌方을 정벌할 때는 1만3천명이라는 당시 최다 병력을 통솔했다는 기록이 있다. 羌方の 정벌에는 光·甫·戊·師盤·沚戛·婦好 등 당시 장군들과 최다 병력과 최정예부대가 참전한 대전이었다. 羌方은 토지가 광활하고 비옥하였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업이 두루 발달하여 羌人은 용맹스럽고 상무정신이 강해 끊임없이 商族

9) 申永子, 《갑골문의 비밀》, 2011, 75-76쪽.

10) 梁東淑, 《甲骨文으로 본 商代 武丁妃 婦好》, 1992, 158-164쪽.

11) 갑골문 제1기에서 5기까지의 方國은 총 136개이며, 그중 제1기인 武丁시기에는 81개가 있다. (王宇信·杨升南, 《甲骨学一百年》, 1999, 498-499쪽)

12) 朱丽, 《中国历史上第一位女军事家—妇好》, 《旅游教育管理》, 2011, 115쪽.

을 괴롭혀왔다.¹³⁾ 이에 武丁왕은 가장 강한 적국이었던 羌方의 정벌에 婦好를 대장군으로 삼아 최다 병력을 통솔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이처럼 婦好는 武丁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군사방면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2) 婦好墓의 발굴

갑골문이 발견되기 이전 상나라의 존재는 《史記·殷本紀》 등 몇몇의典籍에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갑골문이 발견되고 婦好墓가 발굴되면서 그동안 전절이나 신화로만 여겼던 상나라는 당당하게 歷史時代로 재현되었다.

婦好墓는 1976년 殷墟 小屯村 북서쪽, 궁궐 안에서 발굴되었다. 婦好의 묘는 지하 9층으로 되어 있다. 지상으로부터 제1층은 1m 아래에 있다. 가장 지하에 관이 있는 곳은 9층으로 약 7.5m 아래에 있다. 넓이는 동서로 4m, 길이는 남북으로 5.6m이다. 각 층마다 부장품들이 있지만 지하 9층에 무려 1,000여점의 靑銅器·玉器 등의 부장품이 있다. 이 외에도 16명의 시종과 호위병이 6마리의 개와 함께 순장되어 있다. 부장품에는 청동기 468점, 옥기 755점, 石器 63점, 寶石器 47점, 骨器 564점, 象牙器 3점, 陶器 11점 등 총 1,926점이 있다. 당시 화폐로 사용되었거나 여인의 호신부로 사용된 貝類가 6,700여점이 발굴됐다.¹⁴⁾

당시의 매장 관습에 비추어 보면 수장을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한 冥器가 많았고, 정복된 방국에서의 진상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장품은 死者가 생전에 몸에 지녔거나 일상도구로 신변 가까이에서 사용했던 물품들이다. 따라서 수장품은 그 사람 생전의 기호, 취미, 생활의 면모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婦好墓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은 婦好의 문화적인 생활상은 물론 그녀의 미적 감각, 여인들의 장신구의 유형·당시의 衣冠·머리모양·계급에 따른 인물형상·나아가 商代의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이해의 폭을 넓게 해주고 있다.¹⁵⁾ 婦好墓에서 출토된 器物들은 商代 수공예의 정수를 엿볼 수 있도

13) 梁東淑, 〈甲骨文中으로 본 商代 武丁妃 婦好〉, 1992, 164-169쪽.

14) 杜久明 主編, 《中國殷墟》, 2006, 206쪽.

15) 梁東淑, 〈甲骨文中으로 본 商代 武丁妃 婦好〉, 1992, 169쪽.

록 한다.

3. 내용 분석

花東甲骨文的 占卜의 주체는 ‘子’로서 非王卜辭에 속한다. 花東甲骨文 중 주요 인물은 子, 婦好, 丁(武丁)이다. 이들 세 사람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고, 婦好와 丁(武丁)은 王卜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본장에서는 花東甲骨文 중 婦好와 관련 있는 卜辭만을 발췌하여 그녀의 활동 및 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花東卜辭 중 婦好 관련 기록은 25개 龜板에 44조¹⁶⁾가 있다. 그 중 卜辭의 내용이 너무 적거나 분명하지 않는 것 7조¹⁷⁾는 분석이 불가능하여 분석을 보류하였다. 花東甲骨文 중 婦好 관련 卜辭 37조의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헌납(공납)류로 모두 15조이다. 그 다음이 婦好에게 뭔가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婦好에게 獻納 및 알현하는 유형

(1) 婦好에게 헌납(공납)하는 卜辭

婦好에게 헌납(공납) 및 알현하는 卜辭의 유형은 ‘子呼類’이다. 즉 子가 子의 家臣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총 15조가 있다.

[예1] 辛亥卜：子其以婦好入于 尗¹⁸⁾，子乎(呼)多 卩(御)正見(獻)于婦好， 攸

16) 朱岐祥은 花東甲骨文 중 婦好 관련 卜辭가 18版에 있다고 했다. (朱岐祥, 〈花東婦好傳〉, 2007, 2쪽).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결과 花東卜辭에 婦好 관련 卜辭는 모두 25판에 44조의 卜辭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록 참조)

17) 5(11,12,13,14.), 294(5), 320(2), 372(10) 등 7조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卜辭이다. (부록 참조)

18) 花東卜辭에서 尗지역은 자주 등장한다. 子는 尗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H3卜辭 중 19개 龜板에 기록되어 있다. 子는 이 지역에서 종묘의 보수, 제사 및 기타활

(啓,肇)19)紆20)十, 往(彙)21). 一

H3:63(2)22)

등을 했다. 기타 활동에는 紆에서 비를 피하는 내용이 있고(H3: 421), 상왕실의 귀족 자제들의 商學, 學舞의 활동 장소이기도 했다(H3: 493, 267, 427). 子是 紆지역에서 제사, 住宿, 수렵 등을 행했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351-353쪽)

- 19) 彙는 啓와 肇로 隸定한다. 姚萱은 肇로, 魏慈德은 啓로 隸定했다. 본고에서는 肇를 따르고 '공납(헌납)하다'의 의미로 풀이한다.
- 20) 紆는 糸와 斤으로 합쳐진 글자로 자형으로 볼 때 도끼(斤)로 실을 자르는 모양이다. H3:292(1,2)에 '大紆其作宗(1), 小紆(其作宗)(2)'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紆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尚書》, 《周禮》, 《禮記》, 《儀禮》 등의 기록에 의하면 紆은 종묘에 설치하는 물건인데 그 설치상황이 후세의 병풍 같은 물건 즉 斧, 依(衣), 扆라 칭하는 것과 같다. 역대(典籍의) 注疏에 근거해보면 이 물건은 한 물건인데 이름이 다양하다. 재료로 보면 견직물에 수를 놓아 만든 黼이다. 색채와 문양으로 보면 緋(진홍 강) 혹은 붉은색이다. 도끼의 문양은 위엄을 나타낸다. 설치하는 창문(戶牖)과 창문 사이에 설치했다. 창문사이를 扆(병풍 의)라 칭하였기에 扆라고 칭했다. 그러므로 斧, 黼, 扆는 종묘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며 같은 물건으로 각기 다른 3개의 명칭으로 나타낸다. 斧는 형상을 취하고 黼는 재질을 취했으며 창문사이에 설치하였으므로 扆라고 칭해 장소를 취한 것이다. 西周부터 漢代까지는 宗廟에 모두 이런 설치를 했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58-61쪽)
- 21) 往(彙)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彙'에게 往祭를 지내다'이고, 다른 하나는 '彙'지역으로 가다'이다. 韓江蘇는 彙는 罍으로 隸定하고 '先公名'으로 보고 제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즉 '先公인 彙에게 往祭를 지내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H3:195(1), H:63(2,3), H3:37(20) 등 세 龜板에 같은 사안을 辛亥일과 壬子일에 占卜을 했는데, 모두 지역은 紆이고 인물은 子와 婦好이며 往(彙)이다. 즉 子是 婦好를 모시고 紆지역으로 가서 彙에게 往祭를 지내는 것으로 보았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57-58쪽). 그러나 魏慈德은 '彙'지역으로 가다'로 풀이하고 있다. 花東甲骨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가 彙지역이다. 그리고 彙와 紆지역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았다(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104-105쪽). 본고에서는 韓江蘇의 주장에 따른다. 그 이유는 본편에 '往(彙)'가 있는 기록은 모두 5條이다. 모두 辛亥日과 壬子日에 占卜한 내용이고 韓江蘇의 풀이처럼 子가 婦好를 모시고 紆지역으로 간 다음 紆·扆 등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예물을 헌납하여 先公인 彙에게 往祭를 지낼 준비를 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2) H3은 花東卜辭이고 앞의 숫자는 花東卜辭의 도판번호이며, ()의 숫자는 해당 번호에서 행을 의미한다. 즉 H3:63(2)은 花東卜辭 중 63번의 도판이고 (2)은 63번 도판卜辭 중 2번째 행에 있다는 의미이다. 花東卜辭의 도판 및 번호는 姚萱의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 初步研究》중 附錄一 '花園莊東地甲骨卜辭釋文'을 저본으로 삼고, 《殷墟花園莊東地甲骨》과 魏慈德的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중 '殷墟花園莊東地甲骨同版事類表'를 참고하였다.

辛亥일에 점을 칩니다. 子가 婦好를 모시고(以) 欸지역에 들어간 다음, 子는 多卣(御)正에게 명하여 婦好를 알현(見)하도록 하고 紆 10필을 헌납한 후 纁에게 往祭를 지낼까요?

[예2] 辛亥卜：發²³⁾ 攸(肇)婦好紆三，(微) 曄 攸(肇)婦好紆二²⁴⁾，用。 往 纁？ 一。 H3:63(3)

辛亥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發에게 (명하여) 婦好에게 紆 세 필을 헌납하도록 할까요, (子는) 微에게 (명하여) 婦好에게 紆 2필을 헌납하도록 할까요, 채용되었다. 纁에게 往祭를 지낸다.

[예3] 辛亥卜：子攸(肇)婦好 玁²⁵⁾，往 纁？在 欸。 一二 H3:195(1)

辛亥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婦好에게 玁 를 헌납하고 纁에게 往祭를 지낼까요? 欸 지역에서

[예4] 壬子卜：子以婦好入于 欸，子乎多卣(御)正見于婦好，攸(肇)紆十，往 纁？ 一二三四五 H3:37(22)

壬子일에 점을 칩니다. 子가 婦好를 모시고(以) 欸지역에 들어간 다음, 子는 多卣(御)正에게 명하여 婦好를 알현(見)하도록 하고 紆 10필을 공납(啓)하게 한 후 纁에게 往祭를 지낼까요?

[예5] 壬子卜：子以婦好入于 欸，子乎多賈見于婦好，攸(肇)紆八？ 一 H3:37(21)

壬子일에 점을 칩니다. 子가 婦好를 모시고 欸지역에 들어간 다음, 子는

23) 《殷墟花園莊東地甲骨》의 釋文에서는 彳로 隸定했으나 최근 姚萱 등 학자들은 發로 隸定했다. ‘子呼類(子가 家臣에게 명령을 내리는 류)’의 卜辭로 볼 때 發로 隸定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發은 子의 家臣 중 한 사람이다.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90쪽)

24) 이 구문 63(3)은 辛亥일에 占卜한 것으로 同版에 있는 바로 위행에 있는 63(2)와 같은 유형으로, ‘子其以婦好入于 欸，子乎(呼)’가 생략한 형태로 본다. 發과 微는 子의 家臣들이다.

25) 玁：손으로 옥을 쥐고 있는 모양이다. 弄으로 풀이한다. 祭사에 사용되는 계수품이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58쪽)

多賈에게 명하여 婦好를 알현하도록 하고 紆 8필을 공납(啓)하도록 할
 까요?

[예6] 壬子卜：子以婦好入于兌，玁三，往玁？一二 H3:37(20)

壬子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婦好를 모시고(以) 兌지역으로 가서 玁 3
 개를 헌납한 후 玁에게 往祭를 지낼까요?

(2) 婦好를 알현하는 卜辭

[예7] 辛亥卜：叀發見于婦好？不用。一 H3:63(4)

辛亥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發(彈)로 하여금 婦好를 알현하도록 할까
 요?

[예8] 辛亥卜：乎(微)鬯(面)消見于婦好？在兌。用。一 H3:195(2)

辛亥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微)鬯(面)에게 명하여 婦好를 알현
 하도록 할까요? 兌지역에서

위 두 예문[7,8]은 위의 '헌납류'와 연관되어 있다. 모두 辛亥일에 占卜하고 婦
 好를 알현하는데 家臣들 중 누구에게 명하면 좋을지 묻고 있다. 모두 子呼類에
 속하며 子의 家臣 중 發과 微面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子가 丁을 알현하는 卜辭도 있다. H3:37(3)己卯卜：子見以玉丁？
 用。(子는 丁을 알현하면서 옥을 드릴까요). 同版인 H:37(4)以一鬯見丁。用。(子
 는) 술(鬯) 한 통을 드리면서 丁을 알현할까요). 이를 통해 볼 때 子는 婦好와 丁
 을 알현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丁을 알현할 때는 子가
 직접 했고, 婦好를 알현할 때는 家臣들 중 누구에게 명하여 알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占卜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婦好를 모시는 卜辭

[예9] 辛亥卜：子以婦好入于尗?用。一 H3:195(3)

子는 婦好를 모시고 尗지역으로 갈까요

위 예문은 辛亥일에 단지 子가 婦好를 모시고 尗지역으로 가는 것만을 기록했다.

이상은 辛亥일과 壬子일에 占卜한 내용으로 [예9]를 제외하고 모두 ‘子呼類’에 속한다. 干支로 볼 때 辛亥일 다음날이 壬子일이다. 辛亥일에 6조 {H3:63(2,3,4), H3:195(1,2,3)}이고, 壬子일에 3조{H3:37(20,21,22)}이다.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干支卜	花東卜 辭번호	子以婦好入 于 <small>尗</small>	見婦好者	예물/수량	往 <small>尗</small> 유무	유형
辛亥卜	63(2)	○	多御正	紆/10	○	獻納類
"	63(3)	×	發 微	紆/3 紆/2	○	"
"	195(1)	×	子	玃/0	○	"
"	63(4)	×	發	-	-	見類
"	195(2)	×	微面	-	-	"
"	195(3)	○	-	-	-	以類
壬子卜	37(20)	○	子	玃/3	○	獻納類
"	37(21)	○	多賈	紆/8	×	"
"	37(22)	○	多御正	紆/10	○	"

辛亥일에 占卜한 것 중 [예1] H3:63(2)(辛亥卜：子其以婦好入于 尪，子乎多 卣(御)正見于婦好， 啟(紘) 紘十， 往 罍 ?)가 가장 완전한 모습이다. [예2] H3:63(3)은 위 예문 중 ‘子其以婦好入于 尪’와 ‘子呼’가 생략된 형식으로 子의 家臣인 發이 婦好를 알현하면 紘 3필을 헌납하고, 子의 家臣인 微가 婦好를 알현하면 紘 2필을 헌납해도 될지 여부를 묻고 있다. [예3] H3:195(1)은 子가 직접 婦好에게 玁를 헌납하고 罍에게 往祭를 지낼 것인지 묻고 있다. 즉辛亥일에 婦好가 子의 영지인 尪지역으로 와서 罍에게 往祭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고 누구한테 명하여 婦好를 영접하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子가 직접 알현하는 것이 좋을지 묻는 내용이다. 예[7,8]은 단지 子가 누구한테 명령하여 婦好를 알현하게 할지만 있을 뿐 예물도 수량도 없다. [예9] H3:195(3))은 단지 婦好를 모시고 尪지역으로 가는 것만 있다. 위의 상황으로 볼 때 婦好를 알현하는 일에 세심주의를 기울였으며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엿볼 수 있다.

壬子일에 占卜한 것 중 [예4] H3:37(22)(壬子卜：子以婦好入于 尪，子乎多 卣(御)正見于婦好， 啟(肇) 紘十， 往 罍 ?)가 가장 완전한 모습이다. 위 예문과 同版에 있는 [예5] H3:37(21)은 子가 多賈에게 명하여 婦好를 알현하도록 하고 紘 8필을 헌납하도록 할지 묻는 내용이다. 즉 H3:37(22)는 子가 多御正에게 명하여 婦好에게 紘 10필을 헌납하도록 한 후 往 罍 할지 묻는 반면, H3:37(21)은 往 罍이 생략되고 子의 家臣인 多賈에게 명하여 紘 8필을 헌납할지만 묻는 내용이다. 同版에 있는 [예6] H3:37(20)은 子가 婦好를 모시고 尪지역으로 가서 子가 직접 玁 3개를 헌납한 후 罍에게 往祭를 지낼지 여부를 묻고 있다. 특히 H3:37(22)의 壬子일과 H3:63(2)의 辛亥일에 묻는 내용이 똑같고 단지 占卜 날짜만 다를 뿐이다.

H3:63과 H3:195 두 개의 귀판에는 모두 辛亥일에 점복한 것 6조를 기록했다. 한 귀판에 ‘子以婦好入于 尪’가 하나씩만 있다. 그러나 壬子일에는 3가지 내용으로 한 개의 귀판인 H3:37에 기록했지만 모두 ‘子以婦好入于 尪’를 다 기록하고 있는

접이 독특하다.

이들 동안 연달아 占卜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단지 婦好를 알현하는 사람과 예물의 수량이 다를 뿐이다. ‘子以婦好入于桴’하고 ‘子呼類’ 유형에서 婦好에게 헌납하는 것은 新이고 子가 직접 헌납하는 예물은 冢이다. 이해보아 婦好는 子와 子의 家臣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子는 婦好에게 정성스럽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매우 엄중하게 대했음을 알 수 있다.

[예10] 戊辰卜:子其以磬妾²⁶⁾于婦好, 若?一三四五 H3:265(1)
 戊辰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磬지역의 妾(여자 노비)를 婦好에게 바칠
 까요?

[예11] 庚午卜:子其以磬妾于婦好, 若?一三三 H3:265(3)
 庚午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磬지역의 妾을 婦好에게 바칠까요?

위의 [예문10, 11]은 똑같은 사안을 戊辰일과 庚午일에 占卜하고 同版(같은 龜板)에 새겼다. 干支로 볼 때 戊辰일 이틀 후가 庚午일이다. 子가 직접 婦好에게 磬妾을 드릴지 여부를 연달아 묻는 것으로 보아 子는 婦好에게 뭔가를 바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12] 甲申卜:奭配²⁷⁾, 孚曰:婦好告白屯²⁸⁾?用。 H3:220(6)

26) 磬妾에 대한 풀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磬은 지역명이고, 妾은 여자노비로 풀이한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181쪽). 또 하나는 磬은 악기, 妾은 여자노비로 풀이한다. 즉 妾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여자노비이며 石磬을 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이다. (曹定云, 《三論殷墟花東H3卜辭中占卜主體子》, 2009, 10쪽). 花東甲骨文의 주체자인 子가 婦好에게 공납하는 것은 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禮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본 고에서는 磬妾은 磬지역에서 보내온 妾(여자 노비) 즉 人牲(여자 희생물)로 풀이한다.

27) 酉 卩(配)의 풀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卩으로 보고 ‘즉시’, ‘즉각’의 의미로 풀이했다.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8쪽) 또 하나는 人名으로 ‘子配’로 보았다. (曾小鵬, 武曉麗, 《花園莊東地甲骨第005片考釋》, 《語言文字學研究》第82卷, 2012, 96쪽) 본고에서는 인명으로 풀이했다.

28) 白屯은 白純이며 흰색의 견직물 천이다. 白屯이란 제사를 드릴 때 청동이나 옥기 등의 禮器

甲申일에 점을 칩니다. 子配로 하여금 婦好에게 白屯을 헌납하도록 할
 까요?

[예13] 甲申卜：子其見²⁹婦好³⁰？ H3:26(5)

甲申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婦好에게..... 헌납(見)할까요.

위 예문은 둘 다 甲申일에 占卜한 내용이다. [예12] H3:220(6)은 甲申일에 婦好에게 白屯을 헌납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占卜한 [예13] H3:26(5)는 龜板이 훼손되어 무엇을 헌납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同版에 같은 날 占卜한 H3:26(6) 甲申卜：子夷豕歿罌魚見丁?用(子는 돼지와 때려잡은 생선을 丁에게 바칠까요?)라는 卜辭가 있고, H3:220(6)에 같은 날 婦好에게 白屯을 헌납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屯을 공납(헌납)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子는 婦好와 丁이 子의 영지에 올 것을 알고 두 사람에게 무엇을 바칠 것인지를 占卜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14] 壬申卜：子其以羌³¹于帚(婦好)，若，永(侃)?一二 H3:215(1)

壬申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婦好에게 ... 羌人을 바칠까요

[예15] 戊寅卜：自³²其見于婦好?用。二 H3:451(3)

戊寅일에 점을 칩니다. 로부터 가져온 것을 婦好에게 헌납할까요?

이상의 예문은 子가 婦好에게 磬妾·白屯·羌人· 로부터 가져온 물건 등을

를 덮는 천으로 견직물 중 고급재료이며, 配祭를 지낼 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했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130-131쪽) 白屯에 관한 卜辭는 同版에 또 하나가 있다. 220(7) □□卜：子其入白屯，若?(子가 白屯을 헌납하면 순조로울까요?).

29) 花東卜辭 중 婦好 관련 卜辭에서 屯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하나는 '알현하다'이고 또 하나는 '공납(헌납)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본 편에서는 '공납하다'로 풀이했다.

30) 卣에 대한 풀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화려하게 수를 놓은 천을 卣라고 했다. (曹定云, 《三論殷墟花東H3卜辭中占卜主體“子”》, 2009, 10쪽) 또 하나는 卣를 帶로 隸定하고 '대동하다', '가져오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姚萱, 《殷墟花園庄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2006, 98쪽). 본고에서는 姚萱의 풀이를 따랐다.

헌납하는 내용이다.

[예16] 丙辰卜：子 𠄎[金]³¹⁾ 𠄎今日 𠄎(句, 𠄎) 𠄎(黍) 𠄎(黍)³²⁾ 于帚，若？
用。一 H3:218(1)

[예17] 丙辰卜：子 𠄎其 𠄎(句, 𠄎) 𠄎(黍) 于帚，若，侃？用。一
H3:218(2)

[예18] 丙辰卜：子其 𠄎(句) 𠄎(黍) 于帚，𠄎配乎(呼)。用。一 H3:379(1)

위 세 가지 예문[16, 17, 18]은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同文例이다. 그러나 韓江蘇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고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워 한역을 보류하였다.

이상 헌납(공납)에 관한 卜辭를 살펴본 바 子는 婦好에게 紆·玁·磬妾·羌人·白屯 등을 헌납했다. 子는 婦好에게 예물을 헌납하는데도 子가 직접 드릴지, 아니면 子의 家臣들 즉 多御正·發·微·微面·多賈로 하여금 헌납하도록 할지, 예물의 수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엄중하고도 매우 세심한 배려를 했음을 알 수 있다.

2) 婦好에게 告(報告)하는 卜辭

花東甲骨文에서 婦好 관련 卜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 子가 婦好에게 告(報

31) 子 𠄎[金]은 魏慈德 子 𠄎으로 隸定하고, 姚萱은 子金으로, 韓江蘇는 子𠄎으로 隸定하고 있다. 좀 더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子 𠄎[金]은 H3:247(4) 丁亥卜：子 𠄎其往，亡災와 H3:6(3) 子 𠄎貞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子 𠄎[金]는 人名이다. 子는 子 𠄎[金]의 안위를 염려했고, 子 𠄎[金]은 眞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2) 韓江蘇는 𠄎를 米와 來의 합체자로 보고 채집해서 가공한 후의 기장알맹이(采摘加工后的黍粒)로 풀이하고 제사에 쓰이는 음식 제물(粢盛)로 보았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164-165쪽)

告)하는 내용이다. 모두 5조가 있다.

- [예19] 癸卯卜：子弜告婦好，若？用。一 H3:296(4)
 癸卯일에 점을 칩니다. 子가 婦好에게 고하지 않으면 순조로울까요?
 [예20] 癸卯卜：弜告婦好？用。一 33) H3:296(5)
 癸卯일에 점을 칩니다. 婦好에게 고하지 말까요? 채용되었다.

위 예문은 둘 다 癸卯일에 子가 婦好에게 보고하지 말아야할지 묻는 내용이다. 예[20]의 구문은 子와 若만 생략된 형태로 同文例로 볼 수 있다. 子의 세심한 주의가 엿보이는 예문이다.

- [예21] 辛巳：子其告行³⁴⁾于婦，弜(以)，一 H3:211(1)
 子는 行의 (일을) 婦好에게 고할까요?

위 예문과 同版인 211(2)弜告行于丁((자는) 行의 (일을) 丁에게 고하지 말까요)라는 卜辭가 있다. 이 구문은 [예21]H3:211(1)과 같은 유형으로 주어인 子가 생략되었다. 子는 行의 (일을) 婦好에게 고할 것인지 아니면 丁(武丁)에게 고할 것인지 묻고 있다. 누구에게 고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子는 丁과 婦好에게 지대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 [예22] 丙卜：又(有)由女，子其告于婦好，若？一 H3:3(1)

33) 위의 내용은 同版에 같은 날 占卜했던 H3:296(3)癸卯卜：其入玉鳥，永(侃)，用。(癸卯일에 점을 칩니다. 玉鳥(옥으로 만든 새)를 드리면 기뻐할까요?)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즉 玉鳥를 드리면 기뻐할지를 묻는 것으로 봐서 그 내용을 婦好에게 報告할것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
 34) 行：韓江蘇는 H3:401(12)...平行的의 구문을 인용하면서 人名으로 보고 있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149쪽) 또한 H3:286(30) 婦好告子于丁，弗□?의 구문과 같은 유형으로 여기서 子는 인명으로 본다. 그러므로 行을 인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자가 婦好에게 告하면 순조로울까요?

[예23] 婦好告子于丁, 弗□? 一 H3:286(30)

婦好는 丁에게 子의 (일을) 고할까요, 아닐까요?

위 [예23]는 위의 [예21]과 같은 유형이다. 단지 주어가 다를 뿐이다.

3) 婦好를 영접하고 찬미(妸)하는 卜辭

[예24] 乙卜 : 其夆呂 𠄎³⁵⁾ [多子]于婦好? 一 H3:409(32)

呂 𠄎 (多子)에서 婦好를 영접(맞이)할까요?

[예25] 乙酉卜: □ [妸] 婦好? H3:288(3)

婦好를 찬미할까요?

[예26] 甲戌卜: 子乎 𠄎³⁶⁾ 妸婦好. 用, 在 妸, 一 H3:480(5)

子는 𠄎에게 명하여 婦好를 찬미(妸)하게 할까요

[예27] 乙酉卜: 妸婦好六³⁷⁾人, 若, 侃(永)用? 一 H3:288(2)

.....婦好를 찬미할까요,

위 예문[24]은 婦好를 迎接하는 내용이다. 위 예문[25,26,27]은 동사 '妸'와 관련 있는 구문들이다. 妸는 본래 嘉로 읽으며 '기쁘다'의 뜻이며, 출산에서 득남한 경우이며 득녀를 했을 경우 不妸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³⁸⁾ 그러나 본 편에

35) 夆 : 사람이 거꾸로 있는 모양이다. (趙誠, 《甲骨文簡明辭典》, 1988, 66쪽). 본편에서는 '영접하다'는 동사로 쓰였다. 𠄎는 多子の 合文으로 봤다. (姚萱, 《殷墟花園庄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2006, 99-102쪽).

36) H3卜辭에서 𠄎은 인명, 지명, 족명으로 쓰였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239쪽) 여기서는 인명으로 풀이한다.

37) 六은 숫자가 아니라 인명으로 풀이했다. 六은 武丁시기 하나의 封國으로 '六國'과 상왕실은 혼인관계에 있었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180쪽) 그러나 韓江蘇의 주장에 異見이 있어 풀이를 보류했다.

서는 출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아름다움(美)’, ‘아름다움을 찬미하다(稱美, 稱譽)’, ‘추앙하다(推崇)’의 의미로 쓰였다.³⁹⁾ 이 구문들의 앞 뒤 문맥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妣를 ‘찬미하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4) 婦好가 기뻐할지를 묻는 卜辭

[예28] 乙亥卜: 婦侃⁴⁰⁾ H3:5(7)

[예29] 乙亥卜: 婦侃 H3:507(1)

婦好가 기뻐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판에 기록하고 있다. 子는 婦好가 기뻐할지 여부도 占卜했지만 丁이 기뻐할지의 여부를 묻는 卜辭가 더 많다. 예를 들면 H3:150(4)子其學商, 丁侃, 181(23)子其無不又, 丁侃 등과 같이 丁(武丁)이 기뻐할지의 여부를 占卜했다.⁴¹⁾

5) 일의 집행과 관련된 卜辭(史(事)于婦好)⁴²⁾

[예30] 乙亥卜: 史(事)⁴³⁾于婦好?一二 H3:5(2)

38) 趙誠, 《甲骨文簡明辭典》, 1988, 280쪽.

39) 朱岐祥, 《花東婦好傳》, 2007, 4쪽. 이 외에도 嘉는 吉, 善, 好의 뜻이 있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240쪽)

40) 원 釋文은 永으로 隸定했으나 최근에는 侃으로 隸定하고 ‘기뻐하다’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41)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3쪽.

42) 이 부분은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한역을 보류한다. 단 구문으로 보아 대체로 婦好에게 일이 있거나 혹은 婦好의 명령이 있으면 子는 그 일을 집행하려고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3) 酉 卩(配德)의 풀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卩으로 보고 ‘즉시’, ‘즉각’의 의미로 풀이했다.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8쪽) 또 하나는 人名으로 ‘子配’로 보았다. (曾小鵬, 武曉麗, 《花園莊東地甲骨第005片考釋》, 語言文字學研究 第82卷, 2012, 96쪽) 齊航福도 인명으로 풀이하고 있다. (齊航福, 《花東卜辭中的賓語前置句試析》, 《語言學研究》第31卷, 2008, 98쪽)

44) 史(事)于婦好: 두 가지 풀이가 있다. 하나는 ‘(婦好의) 명령을 집행하다’는 의미이고(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7쪽), 또 하나는 事를 ‘侍奉’의 의미로 보고 婦

- [예31] 夷酉史(事)曰⁴⁵⁾婦^四 ? H3:5(4)
- [예32] 乙亥卜 : 婦好又(有)史(事), 子佳妣于丁⁴⁶⁾曰婦好 ? 一二
H3:5(10)
- [예33] 辛卯卜, 貞: 帚母⁴⁷⁾又[有]言⁴⁸⁾, 子从微, 不从子臣? 一 H:290(1)

6) 子の 관례를 치르는 卜辭

- [예34] 丙卜 : 佳婦好乍(作)子齒⁴⁹⁾ ? 一 H3:28(3)
- 婦好가 子の 관례를 치를까요?

위의 예문은 婦好가 子の 冠禮를 치르는 내용이다. 同版에 28(1)亞奠乍(作)子齒, 28(2)小臣乍(作)子齒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亞奠, 小臣도 作子齒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好를 侍奉하다로 풀이했다. 갑골문에서는 종종 명사가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曾小鵬, 武曉麗, 〈花園莊東地甲骨第005片考釋〉, 2012, 96쪽)

- 45) 曰: 花東卜辭에서 曰은 동사 이외에도 介詞 '于'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曾小鵬, 武曉麗, 〈花園莊東地甲骨第005片考釋〉, 2012, 96쪽)
- 46) 妣于丁: 妣을 '休'로 隸定하고 '休于丁'이란 固定結句이며 '丁에게 (신의) 가호가 있을까요? (福佑于丁)'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曾小鵬, 武曉麗, 〈花園莊東地甲骨第005片考釋〉, 2012, 96쪽) 그러나 본편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한역을 보류한다.
- 47) 花東卜辭에서 母(혹은 女)는 好의 생략형으로 보고 好는 즉 婦好를 지칭한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151쪽)
- 48) 言: 제사명으로 풀이하고 있다. 婦好가 제사를 지낼 때 微 혹은 子臣으로 하여금 제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묻고 있다고 했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331쪽) 그러나 본편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한역을 보류한다.
- 49) 齒: 韓江蘇는 齒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1) 치아, 2)상아, 3)착오, 재해(치아가 마모되어 서로 착오가 일어난 의미에서 인신), 4)했수, 연령의 의미(이가 자라는 의미에서 인신), '作子齒'는 年次, 編次, 順次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西周時期的 '冠禮'의식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韓江蘇, 《殷墟花東H3卜辭主人“子”研究》, 2007, 169-175쪽).

7) 농사 및 정벌 관련 卜辭

[예35] 庚子卜：子告其秉⁵⁰⁾于帚？一 H3:371(3)
 子는 婦好에게 秉의 일을 고할까요

[예36] 辛亥卜，子曰：余(丙) 𠄎[速]⁵¹⁾；丁令(命)子曰：往眾婦好于 受
 麥⁵²⁾，子 𠄎[速]？一 H3:475(9)

위의 예문들은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36]은 魏慈德과 姚萱의 풀이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韓譯을 보류하였다.

[예37] 辛未卜：丁佳好令从白或伐卨？ H3:237(6)
 丁은 婦好에게 명령하여 白或과 연합하여 卨를 정벌하도록 할까요

위 예문은 정벌 관련 복사로 婦好가 卨를 정벌하는데 참여할 것인지를 占卜하고 있다. 花東卜辭에서 정벌에 관한 卜辭는 단지 3개 龜板에 5조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花東卜辭에 정벌 관련 내용이 적은 것은 자체적으로 정벌활동은 없었고 단지 商王室을 도와 정벌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⁵³⁾ 그러나 王卜辭에서의 婦好는 정벌에 참여한 기록이 많다. 특히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이끌고 羌方을 정벌(辛巳卜，貞：登婦好三千，登旅万，呼伐[羌]……《英》150正)하는 기록이나 巴方을 정벌(辛未卜，爭貞，婦好其比沚戛伐巴方，王自東探伐戎，陷于婦好立

50) 秉은 곡식을 수확한 후 벋짚 등을 없애는 농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76쪽)

51) 速은 겁이며 초청하다는 의미가 있다. (陳劍, 〈說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丁”-附: 譯速〉, 2004, 62쪽)

52) 受는 자가 자주 오갔던 지역으로 농경지와 관련이 있다(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2006, 88쪽). 麥은 小麥과 來(오다)의 의미가 있다. 姚萱은 이 구문을 驗辭로 보고 상왕인 丁(武丁)이子에게 명령하여 婦好와 같이 受지역으로 가서 麥을 심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2006, 134쪽)

53) 申永子, 〈花東甲骨文中 나타난 征伐 관련 卜辭 考察〉, 2012, 86-87쪽

《合集》6480)할 때는 최초의 매복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군사를 징집하고 人方·土方 등을 정벌하는 기록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4. 結論

이상과 같이 花東甲骨文에 나타난 婦好 관련 卜辭 내용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婦好는 商代 후기 武丁의 재위기간에 활동했던 역사상 기록과 실증이 있는 최초의 실존 여인이면서 王妃이다. 그녀는 商王으로부터 封地를 하사받아 다스렸고, 최고에 지위에 있는 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했다. 또한 1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가한 역사상 기록이 있는 최초의 여장군이였다. 갑골문의 기록에만 있던 婦好는 1976년 婦好墓가 완전한 보존 상태로 발굴되면서 역사의 실존 인물이 되었고 그동안 신화나 전설로만 여겼던 상나라를 당당하게 역사로 재현시킨 인물이다.

둘째, 花東甲骨文은 占卜의 주체자가 子인 非王卜辭에 속하며 시기적으로는 갑골문시기 제1기에 해당된다. 이는 武丁왕 초기에 해당된다. 花東甲骨文의 중심 인물은 花東主體者인 子와 丁(武丁), 그리고 婦好이다. 丁(武丁)과 婦好는 王卜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주요인물이다. 花東卜辭 중 婦好 관련 기록은 25개 龜板에 44조가 있다. 내용으로 살펴본 바 婦好는 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子는 婦好에게 예물을 헌납하고, 婦好에게 보고하며, 婦好를 알현했다. 또한 婦好를 극진히 맞이하면서 찬미하고 婦好가 기뻐할지 여부를 占卜하는 등의 기록으로 볼 때 婦好의 지위는 확실히 子보다 높았다. 그리고 婦好는 子의 관례를 치르는데 참여했고, 농사와 정벌에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婦好는 子와 관련된 일을 丁(武丁)에게 보고하는 등 그 활동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고, 子의 일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花東甲骨文에서 婦好와 관련된 卜辭 중 가장 많은 것이 헌납(공납)에 관

한 기록으로 모두 15조이다. 주로 辛亥日과 그 다음날인 壬子日에 占卜을 했다. 이들의 특징은 子以婦好入于 紂, 子呼類이다. 즉 子가 부호를 모시고 紂지역으로 간 다음 子의 家臣 중 누구에게 명하여 婦好를 알현하고 예물을 드리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子는 婦好에게 예물을 헌납할 때 子가 직접 드릴지 아니면 子의 가신 중 누구에게 명령하여 婦好를 알현하도록 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해야 할지 매우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 엄중하게 처리했다. 子의 家臣에 따라 예물의 수량도 달랐다. 多御正은 紂 10필을, 發은 紂 3필을, 微은 紂 2필을, 多賈는 紂 8필을 헌납하도록 했다. 또한 子가 직접 헌납할 때는 紂이 아닌 馮을 드렸다. 이 외에도 子는 婦好에게 饜妾·羌人·白屯 등을 헌납했다. 이러한 예물들은 주로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婦好가 花東甲骨文中에서도 제사를 주관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子가 婦好에게 告(報告)한 내용이다. 무엇을 보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婦好에게 보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를 占卜하여 결정했다. 이로 볼 때 子는 婦好에게 경외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婦好의 승낙을 얻거나 결정을 받아서 뭔가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殷墟花園莊東地甲骨》,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2003.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王譚然, 《殷墟花園莊東地甲骨 荀辭類出人物的考證》, 《語文學刊》, 2012.
 王宇信, 〈序《殷墟花園莊東地甲骨 荀辭主人“子”研究》〉, 《殷都學刊》, 2008.
 王宇信·楊升南, 《甲骨學一百年》,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申永子, 〈花園莊東地甲骨文的 主體인 ‘子’에 대한 考察〉, 《중국문화연구》, 2007.
 _____, 《甲骨文的 비밀》, 서울: 문출판사, 2011.
 _____, 〈花東甲骨文中 나타난 征伐 관련 荀辭 考察〉, 《중국문화연구》, 2012.
 朱麗, 〈中國歷史上第一位女軍事家—婦好〉, 《旅遊教育管理》, 2011.
 朱歧祥, 〈由語詞系聯花東甲骨的丁卽武丁〉, 《殷都學刊》, 2005.

- _____, 〈花東婦好傳〉, 《東海中文學報》, 2007.
- 朱風瀚, 〈犢安陽殷墟花園莊東出土的非王蔔辭〉, 《2004年安陽殷商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 杜久明 主編, 《中國殷墟》, 上海大學出版社, 2006, 206쪽.
- 李學勤, 〈花園莊東地蔔辭的“子”〉, 《河南博物院落成論文集》, 河南 : 中州古籍出版社, 1998.
- _____, 〈關於花園莊東地蔔辭所謂“丁”的一點看法〉, 《故宮博物院院刊》, 2004.
- 李旼始, 〈사실(事實)의 기록(記錄), 《화동(花東)복사(蔔辭)의 험사(驗辭)〉, 《中國文學研究》第44輯, 2011.
- 林沄, 〈花東子蔔辭所見人物研究〉, 《第一屆古文字與古代史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 2006.
-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蔔辭的初步研究》, 北京: 線裝書局, 2006.
- _____, 〈試論花東子蔔辭的“子”當爲武丁之子〉, 《故宮博物院院刊》第6期, 2005.
- 徐中舒, 《甲骨文字典》, 北京: 中華書局, 1989.
- 曾小鵬, 武曉麗, 〈花園莊東地甲骨第005片考釋〉, 《語言文字學研究》第28卷, 2012.
- 常新枝, 〈商代女傑—婦好〉, 《成都教育學院學報》, 2005, p.34.
- 梁東淑, 〈갑골문으로 본 당대 武丁妃 婦好〉, 《순대아시아여성문제연구》 제31집, 1992.
- _____, 《甲骨文解讀》, 서울: 月刊書藝文人堂, 2005.
- 曹定雲, 〈“婦好”、“孝己”關係考證——從婦好母墓“司母辛”銘文談起〉, 《中原文物》第3期, 1993.
- _____, 〈三論殷墟花東H3蔔辭中占蔔主體“子”〉, 《殷都學刊》, 2009.
- 陳劍, 〈說花園莊東地甲骨蔔辭的“丁”-附: 譯速〉, 《故宮博物院院刊》第4期, 2004.
- 張素鳳 張學鵬, 〈甲骨文中從“帚”之字考釋〉, 《中原文物》第6期, 2007.
- 雷曉鵬, 〈迎難而上, 探尋真相《殷墟花東H3蔔辭主人“子”研究》評介〉, 《殷都學刊》, 2009.
- 楊升南, 〈殷墟花東H3蔔辭“子”是武丁太子-孝己〉, 《2004年安陽殷商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 楊州, 〈從花園莊東地甲骨文看殷代的玉禮〉, 《中原文物》第3期, 2009.
- 齊航福, 《東東蔔辭中的賓語前置句試析》, 《語言學研究》, 第31卷, 2008.
- 趙誠, 《甲骨文簡明辭典》, 北京: 中華書局, 1988.
- 劉源, 〈墟花園莊東地甲骨文所見鑿拔之祭考〉, 《甲骨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台灣)》, 2005.
- 蔣玉斌, 《殷墟子蔔辭的整理與研究》, 博士學位論文, 吉林大學古籍研究所, 2006.
- 韓江蘇, 〈殷墟H3蔔辭主人“子”爲太子再論證〉, 《古代文明》, 2008.
- _____, 《殷墟花東H3蔔辭主人“子”研究》, 北京: 線裝書局, 2007.

魏慈德, 《殷墟花園莊東地甲骨 辭研究》, 台北: 臺灣古蹟出版有限公司, 2006.

인터넷 자료:

王寧, 〈 辭中所見婦好事跡述略〉, <http://wenku.baidu.com/view/e83c83966bec0975f465e287.html>

http://baike.baidu.com/link?url=kMHQsTvic6Iv6LxoTqPRqmC468zCk1kjVurw_aG7jK8fCbirzQ66X2ObNngCLgqw

附錄 : 花東甲骨文 중 婦好 관련 卜辭

순번	화동(행)	본문
1.	3(1)	丙卜: 𠄎 又(有)由女, 子其告于婦好, 若?一
2.	5(2)	乙亥卜: 𠄎 子酉口(配)史(事)于婦好?一二
3.	5(4)	𠄎 酉口(配)史(事)曰婦好?
4.	5(7)	乙亥卜: 帚(婦)侃
5.	5(10)	乙亥卜: 婦好又(有)史(事), 子佳女禾于丁曰: 婦好?一二
6.	5(11)	𠄎 今曰曰: 婦好?二
7.	5(12)	𠄎 子曰: 婦好?
8.	5(13)	𠄎 子曰: 婦好?一
9.	5(14)	𠄎 子曰: 婦好?一
10.	26(5)	甲申卜: 子其見婦好?一
11.	28(3)	丙卜: 佳婦好乍子齒?一
12.	37(20)	壬子卜: 子以婦好于 𠄎, 𠄎 三, 往 𠄎 ?一二
13.	37(21)	壬子卜: 子以婦好于 𠄎, 子乎多寧見于婦好, 𠄎 新入?一
14.	37(22)	壬子卜: 子以婦好入于 𠄎, 子乎多 𠄎 正見于婦好, 𠄎 新十, 往 𠄎 ?一二三四五

순번	화동(행)	본문
15.	63(2)	辛亥卜：子其以婦好于 夬 ，子乎多 午 正見于婦好， 啟 新十，往 壘 ？一
16.	63(3)	辛亥卜：彈 啟 婦好 新 三， 匡 婦好新二，往 壘 ？用。一
17.	63(4)	辛亥卜： 夷 彈見于婦好？不用。一
18.	195(1)	辛亥卜：子 啟 婦好 玃 ，往 壘 ？在 夬 。一二
19.	195(2)	辛亥卜：乎(微) 匡 消(面)見于婦好？在 夬 。用。一
20.	195(3)	辛亥卜：子以婦(婦)好入于 夬 ？用。一
21.	211(1)	辛巳：子其告行于婦，弱(以)。
22.	215(1)	壬申卜：子其以羌 暖 咎 于婦，若，永(侃)？一二
23.	218(1)	丙辰卜：子 炅 (金) 夷 今日 咍 糶 (黍)于婦，若？用。一
24.	218(2)	丙辰卜：子 炅 (金)其 咍 糶 (黍)于婦，若侃？用。一
25.	220(6)	甲申卜： 夷 配，乎曰：婦好，告白屯？用。一
26.	237(6)	辛未卜：丁佳好令從(白)或伐邵？一
27.	265(1)	戊辰卜：子其以馨，妾于婦好，若？一二三四五
28.	265(3)	庚午卜：子其以馨，妾于婦好，若？一二三
29.	286(30)	婦好告子于丁，弗□？一
30.	288(2)	乙酉卜： 妣 婦好六 炅 ，若，永(侃)？一
31.	288(3)	乙酉卜：□[妣]婦好？
32.	290(1)	辛卯卜，貞：婦母又言，子從(微) 匡 ，不從子臣？一
33.	294(5)	甲寅卜，子貞卜：母(母)[孟]于婦好，若？一二三
34.	372(10)	[夷] [婦]好□□見？用。一
35.	379(1)	丙辰卜：子其 咍 (句) 糶 (黍)于婦，夷配乎(呼)。用。一
36.	409(32)	乙卜：其 呂 狝 于婦好？一

순번	화동(행)	본문
37.	475(9)	辛亥卜, 子曰: 余 [丙] 𠄎[速]; 丁令子曰: 往眾婦好于 受 麥, 子 𠄎[速]? 一
38.	451(3)	戊寅卜: 自子 𠄎, 審其見于婦好? 用。二
39.	480(5)	甲戌卜: 子乎 𠄎 婦好. 用. 在 𠄎, 一
40.	507(1)	乙亥卜: 婦侃
41.	296(4)	癸卯卜: 子弜告婦好, 若? 用。一
42.	296(5)	癸卯卜: 弜告婦好? 用。一
43.	320(2)	于母婦? 一
44.	371(3)	庚子卜: 子告, 其 乘 于婦? 一

〈中文提要〉

花東甲骨文是占卜的主体“子”属于非王卜辞。根据时期来看属于甲骨文的第一时期。妇好是武丁王的王妃生前的名字。死后朝号称之为“辛”，后代尊重的称为“妣辛”或者“后母辛”。甲骨文中有很多关于她的记录。而且妇好的墓挖掘时几乎没有被毁坏的痕迹，妇好墓里出土了很多遗物，它是3300年前保存下来的完整样子的商代后期殷墟时期的历史和文化的贵重资料。在甲骨文关于妇好的记录以及遗物中有多种资料可以知道武丁时期初期的政治、经济、社会、文化、生活样子、思想方式等等。通过这样的资料可以看到当时的女性文化。

花東甲骨文里和妇好有关的卜辞有24个龟版里有43条。其中子向妇好贡献的内容最多。大部分是辛亥日和下一天壬子日占卜的东西。子向妇好贡献礼物时非常细心的集中注意做到，是不是子亲自送去还是子命令子的家臣送去。子的家臣有多御正、发、微、多贾。叫“多御正”为了参见妇好贡献了10匹紵(丝织品)，叫“发”为了参见妇好贡献了3匹紵，叫“微”为了参见妇好贡献了2匹紵，叫“多贾”为了参见妇好贡献了8匹紵。子亲自参见时送上了 珣，叫子的家臣参见时送上了紵，除了紵、珣 以外，还有子向妇好贡献了磬妾，羌人、白屯等。

除此之外子还向妇好报告了一些事情, 妇好执行事情的时候“子”派遣了人去。而且尽心尽力的迎合和赞美妇好, 是否使妇好很高兴, 从事和占卜等的记录来看时, 妇好的地位在花东主体者里确实比“子”高。还有妇好在支付子的冠礼中起到主导性的作用, 农事和征伐也都参加。从这样的记录里可以看出妇好拥有当时非常强的权利, 在政治、经济、社会文化等多个方面做过多样的事情。

关键词：甲骨文, 花东甲骨文, 花东卜辞, 妇好, 子, 丁(武丁), 商代女性, 妇好活动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3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